전국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불 밝히다

광주 빛고을관등회 점등식
포항 · 영천 등서 점등행사
천안 각원사 유등 점등법회

양행선 · 김선행 · 유재상 지사장






부처님오신날 봉축하기 위한 점등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광주불교연합회 봉축 점등식, 포항불교사암연합회 봉축 점등식, 천안 각원사 유등 점등법회.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 점등식이 전국 각지에서 잇달아 열리고 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소운 스님)는 4월 21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한지로 재현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연합회장 소운 스님은 봉축사에서 "오늘 밝히는 봉축탑의 등불이 광주·전남의 화합과 도약을 여는 희망의 빛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불교연합회는 △북구 점등식(4월 24일, 우산근린공원) △서구 점등식(4월 28일, 운천저수지) △남구 점등식(4월 30일, 광주교) △광산구 점등식(5월 6일, 수완호수공원)을 순차적으로 봉행한다. 이어 5월 9일 5·18민주광장에서 어울림마당, 관등법회, 연등행진, 대동한마당이 펼쳐지는 빛고을관등회 본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포항불교사암연합회(회장 덕화 스님)는 4월 20일 포항시청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고 지역사회 안녕과 화합을 기원했다.

포항시청 광장에 마련된 스틸봉축탑은 철강도시 포항을 상징하는 점등탑으로, 올해는 특별히 홀로그램 효과도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회장 덕화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오늘 봉축탑 점등식 인연으로 부처님의 가피력이 어느 한 곳도 빠짐없이 비추어 하루속히 모두가 어려움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불교사암연합회는 5월 9일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소통문화제'와 '제등행렬'을 개최해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안동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륜 스님)는 4월 18일 안동 웅부공원에서 '불기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회장 도륜 스님은 점등사를 통해 "이번 점등식이 안동불교의 새로운 원력을 세우는 계기가 되고, 이 빛이 웅부공원을 넘어 지역 곳곳을 밝히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점등식 후 참석자들은 형형색색의 연등을 들고 봉축탑 탑돌이를 하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과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되새겼다.

안동불교사암연합회는 오는 5월 2일 웅부공원과 시내 일원에서 봉축법요식 및 제등행렬을 개최할 예정이다.

영천불교연합회(회장 지봉 스님)는 4월 22일 영천강변공원 분수광장에서 '영천연등문화축제'의 일환으로 봉축점등식을 개최했다.

연합회장 지봉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연등의 온기가 우리 사회의 모든 아픔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하고 우리 공동체가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발전의 길잡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다.

스님들과 내빈, 불자, 시민들은 3000개의 연등으로 장식된 교량 위를 함께 행진하며 봉축의 의미를 더했다.

천안 각원사(주지 대원 스님)는 4월 15일 연화지에서 유등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주지 대원 스님과 성기만 신도회장, 한진우 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등이 동참해 유등을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불부처님 형상을 담은 유등을 비롯해 부처님 캐릭터 대등, 소원 성취 발원 쌍탑등, 육바라밀등을 연화지에 띄웠다. 유등은 부처님오신날인 5월 24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9시 30분, 오전 4시부터 5시 두 차례 점등된다.

주지 대원 스님은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부처라는 생각으로 이 땅에 오셨다.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5월, 전주역은 '미륵사지석탑'으로 장엄된다

전북 봉축위, 기자간담회 개최
불기 2570년 봉축 일정 발표해
5월 16일 전라감영서 제등행렬



전북특별자치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4월 17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 일정을 공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화평·경우·연수 스님)는 4월 17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 일정을 공개했다. 올해 봉축 행사는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를 주제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기리고 전북도민의 화합과 상생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봉행된다.

봉축위원회에 따르면 본격적인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봉축 기원탑 점등법회'는 4월 25일 전주역 마중길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다. 이날 법회에서는 미륵사지탑을 5분의 1로 축소해 전통 한지로 제작한 기원탑에 불을 밝힌다. 공동위원장 화평 스님과 진성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메인 행사인 '꿈타는 연등회'는 5월 16일 전라감영 특설무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연등회는 오전 10시부터 연꽃 만들기 등 7개 문화체험 행사가 마련된 '꿈타는 연등회 전통문화마당'으로 문을 연다. 문화마당은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같은 날 '제20회 전북어린이 큰잔치'도 열려 유치부와 초등학생들이 글짓기와 그리기 실력을 겨룬다.

오후 6시에는 금산사 도법 대종사를 비롯해 전북지역 스님들과 신도회, 기관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법요식'이 봉행된다. 법요식 후에는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연등 행진이 이어진다. 행렬은 전라감영을 출발해 한옥마을과 오목대를 거쳐 다시 전라감영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된다. 한지 장엄등 30여 점과 시민들에게 배포된 1000점의 LED 한지 연꽃등이 전주 도심을 자비의 물결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공동위원장인 화평 스님(금산사 주지)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다"며 "다툼과 미움을 뒤로하고 다시 희망을 세우기 위해 연등을 함께 밝히자"고 말했다.

한편, 부처님오신날인 5월 24일 오전 11시에는 금산사를 비롯한 전북지역 주요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이 일제히 봉행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여수불교사암연 여성불자회 창단

4월 22일 창단법회 봉행
김영옥 초대 회장 취임해



여수불교의 새로운 동력이 될 여수불교사암연합회 여성불자회가 4월 22일 창립됐다.

여수불교의 새로운 동력이 될 여성불자 조직이 공식 출범했다.

여수불교사암연합회(회장 연규 스님)는 4월 22일 히든베이호텔 연회장에서 여수불교사암연합회 여성불자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흥국사 주지 진만 스님과 여수불교사암연합회장 연규 스님, 부회장 도해·혜명 스님, 총무 해덕 스님을 비롯해 혜웅(은적사)·상법(법은사)·혜우(안심사) 스님 등 지역 스님들과 김영옥 여성불자회 초대 회장, 창립회원, 주승용 전 국회의원, 이수남 여수시청불자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여성불자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김영옥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불교와의 깊은 인연 속에서 오늘의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스님들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온 세월이 쌓여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한 이 자리에서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신행의 도량을 가꾸고, 자비와 선량한 마음으로 여성불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기법회를 통해 여성 불자들의 신행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겠다"며 "지역사회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교활동과 수행 점검을 병행하고, 교리 교육과 교양 강좌를 통해 여성불자들의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며 "사찰순례와 성지순례를 정례화해 신앙심을 회복하고 회원 간 유대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규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여성불자회 창립의 의미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연규 스님은 "오늘 이 자리는 여수불교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여성불자회가 법의 두 바퀴처럼 여수 불교를 든든히 이끌어가길 바라며, 여수불교사암연합회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출범한 여성불자회는 회장 김영옥을 중심으로 부회장 정근화·우광희, 총무 김정란·백미숙, 재무 여인경·김지연, 감사 신문례·김은식·이진아 등 임원진이 구성돼 조직 운영을 맡게 됐다. 특히 회원 40여 명은 지역의 다양한 여성 지도자와 불자들로 구성돼 향후 활동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증심사 행원당 복원불사 첫 삽

4월 17일 복원불사 기공식



광주 증심사가 화재로 소실된 공양간 '행원당' 복원불사의 시작을 알렸다.

증심사(주지 중현 스님)는 4월 17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공양간(행원당) 복원불사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번 불사는 2024년 9월 화재로 소실된 행원당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사부대중의 발원과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첫 삽을 뜨게 됐다.

주지 중현 스님은 경과보고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기공식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원력의 출발"이라며 "공양은 수행이며 나눔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롭게 조성될 행원당은 수행대중과 신도, 무등산을 찾는 시민 모두에게 따뜻한 공양을 나누는 자비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원되는 행원당은 연면적 399.72㎡ 규모로, 한식 목구조와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결합한 형태로 조성된다. 주방과 공양실, 창고 등을 갖춘 공간으로 2027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영호당 정호 대종사 78주기 다례재

선운사, 4월 16일 대웅보전 등서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4월 16일 대웅보전과 부도전에서 영호당 정호대종사 78주기 추모재와 역대 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근대 불교 교육의 선구자이자 석학이었던 스님의 유훈을 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주지 경우 스님은 "영호 스님 선양사업이 그간 미진했으나 동국대에서 문집 정리와 발간을 진행하고 있어 다행"이라며 "당초 10권을 계획했으나 추가 자료 발굴로 20권까지 확대돼 2028년 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5월 7일 동국대 120주년 기념식에서 1차로 7권을 봉정할 예정"이라며 "문도 스님들도 이 뜻을 함께 새기고 학교 측에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웅보전 의식에 이어 사부대중은 부도전으로 자리를 옮겨 다례재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선운사 역대 조사 스님들의 부도와 탑에 공양을 올리며 법맥을 계승할 것을 서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제천 자은사, 석조지장보살상 점안

4월 13일 점안법회 봉행



제천 자은사(주지 석구 스님)가 4월 13일 석조지장보살입상 점안법회를 봉행하며 지장신앙 도량으로서의 위상을 다졌다.

법주사 조실 허허 지명 대종사는 법문에서 "지옥 중생을 구제하지 않고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큰 원을 세운 지장보살을 모신다는 것은 24시간 365일 설법하는 법사를 도량에 모신 것과 같다"면서 "동참한 사부대중 모두가 지장보살의 서원을 마음에 새겨 가피를 입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주지 석구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신(佛身)의 크고 작음에 따라 부처님의 위신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장보살님을 모신 이 도량에서 정성껏 기도하면 소원 성취와 삶의 평안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은사는 이날 신현종 아트스톤 대표에게 지장보살 조성 불사 공덕을 치하하며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축하 공연에서는 대전 보문산 형통사 연꽃합창단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와 '좋은 날'을 선보였다.

자은사는 2009년 석구 스님이 창건한 도량으로, 큰법당과 극락전 등의 불사를 마친 데 이어 2023년 육지장보살 점안과 이번 석조지장보살입상 조성으로 지장기도 도량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상주 용화사, 약사전 낙성법회

4월 19일 300여 명 동참



상주 용화사(주지 도순 스님)가 4월 19일 약사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스님 30여 명과 신도,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번 낙성법회는 약사전 건립 불사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약사여래 부처님의 자비와 치유 가피가 도량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두루하기를 발원하는 의미가 담겼다.

주지 도순 스님은 경과보고에 이어 인사말에서 "약사부처님은 지혜와 깨달음을 주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나아가 중생의 소원을 성취하도록 이끈다"면서 "이 도량이 우리 모두의 영원한 의지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은 축사에서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약사여래를 모신 전각을 장엄하게 건립한 것은 큰 공덕"이라며 "불사에 동참한 모든 이들이 훗날 부처의 길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지사 회주 법성 스님은 법문에서 "용화사는 유서 깊은 불교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량"이라며 "부처님과 수행자, 그리고 신도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 자체로 큰 보물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